

會 議 錄

日 時 : 2018년 6월 26일 오전 11시30분

場 所 : 풀꽃세상 사무실

參席人員 : 8명(한규택, 최병철, 조복제, 황영승, 이한경, 한중욱, 김병희, 강희석)

會義安建 : ◦ 2018년 애린양로원, 풀꽃세상 2차 추경 예산 심의 건

回義內容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 참석을 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를 해 드린 대로 2018년 애린양로원, 풀꽃세상 2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린양로원 2018년 1차 추경 세입 예산액은 1,048,054 천원이었고
세출 예산액은 1,048,054 천원이었습니다.

2018년 2차 추경 세입 예산액은 1,048,054 천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048,054 천원입니다.

풀꽃세상의 2018년 1차 추경 세입 예산액은 1,146,616천원이었고
세출 예산액은 1,146,616 천원이었습니다.

2018년 2차 추경 세입 예산액은 1,146,616천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1,146,616천원입니다.

최병철 이사 : 원안을 참고해보면 애린양로원의 예산이 1차 추경예산과 총 예산 금액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규택 대표이사 : 예, 애린양로원의 어르신들은 본관과 신관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본관 2층 생활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은 1998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또 북쪽이다 보니 겨울에 외풍이 심하여 그 생활실만 창문을 이중창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으로 본관 모든 창문을 이중창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생활실만 제외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예전에 공사를 했던 곳이라 창문도 들뜨고 외풍이 심하여 올해 계획을 세웠고 공사를 하였는데 예산서상 시설장 유지비가 부족하여서

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여름 이불을 오래 사용하다보니 이불이 낡아서 새로 장만해드리기 위해 추경을 하였습니다.

김병희 이사 : 예산서에 보니 피복비가 많이 있는데 왜 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한규택 대표이사 : 예, 이불구입은 엄연히 피복비로는 구입할 수 없고 수용기관경비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황영승 이사 : 예, 풀꽃세상의 경우도 애린양로원과 마찬가지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규택 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풀꽃세상도 1차 추경예산과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풀꽃세상의 경우 2008년도에 개원을 한 비교적 신건물이지만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의 아스팔트 성글이 태풍 때나 세찬 바람으로 날아가기도 해서 시에서 보조를 조금 받아 일부분을 공사를 하였지만 계속되는 피해로 시에다 기능보강 신청을 하였지만 한번 보조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는 보조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붕공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예비비로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월금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1차 추경에 비해 예비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풀꽃의 경우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비 증가로 10,000천원이 생계비에 더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이한경 이사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두 어르신들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추경인 것 같습니다.

강희석 이사 : 추경 예산안에 문제가 없으므로 2018년 애린양로원, 풀꽃세상요양원의 2차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조복제 이사 : 동의에 재청합니다.

한규택 대표이사 :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라고 물으니 다른 의견이 없어 가부취결하니 전원 “예” 하다.

그러면 2018년 애린양로원, 풀꽃세상요양원의 2차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애린원 이사회가 폐회됨을 선포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대표이사 한 규 택



이 사 최 병 철



조 북 체



황 영 승



이 한 경



한 중 유



김 병 회



강 희

